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전북에 고향사랑기부 인증...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가 1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고향사랑기부인증 행사를 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10개 국가거점 국립대 균형발전 협력 '맞손'

전북대 등 참여 협약 체결... 국가전략기술 분야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과 교육 분야 현안 논의

전북대 등 전국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KNU10)가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적 난제 극복, 국제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6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간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번 협약을 통해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국가 성장동력 창출, 국가균형발전, 지역소멸 극복, 양극화 해소 등에 긴

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양자·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대학 간 교육·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인프라 공유 △교원 및 연구 인력 상호 교류 △학점·학기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지식 정보 자원, 강의 등 무형 자산의 공유 및 교류 협력 △국가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국가적 난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수행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기회 제공 등이다. 한편 이날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총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교육 분야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 협의했다. /정은성 기자

감사원, 잼버리 감사 준비단계 착수

잼버리 조직위·여가부·행안부·전북도 등 대상
전북도, 감사 대응 총력... 감사 전 자체감사 돌입

"예산집행 내역 등 70% 이상, 전북도와 직접 관련 없어"
도청 공무원노조 "전북도에만 책임 전가해선 안돼"

감사원이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 준비단계에 착수해 전북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내부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북도 등이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특히, 잼버리 부지 선정 배경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활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회유치부터 준비과정, 대회운영, 폐회까지의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고,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일정이 확정될 경우 차질 없이 준비해 사실 여부를 가릴 것"이라며 "주무부처에서 잼버리 업무 분장과 권한, 수행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도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기 전, 김관영 도지사의 지시로 16일부터 도 공무원들과 부안군을 대상으로 자

체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주요 감사 내용은 예산 활용 여부 등이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200건 가까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예산 집행 내역, 조직위 구성 현황 등 70% 이상이 전북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요청인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에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모든 사항을 관장하도록 특별법에 명시돼 있고, 조직위가 공개한 대회 사업비 내용을 보면 이 가운데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예산"이라며 "감사원 감사 등이 전북도에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과했으며, 허위사실 유포 등 사실과 맞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 강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지사, 고교야구 우승
군산상일고 야구부 격려

김관영 도지사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7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 군산상일고 야구부를 격려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군산상일고등학교 임영근 교장, 석수철 감독, 나형은 총동창회장, 야구부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37년만의 우승을 격려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김관영 지사는 "군산상일고 야구부는 전북도와 도민의 자랑거리"라며, "한여름 폭염속에서 정말 고생 많았고, 잘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우승이 우리도민들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선수들도 "부담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으로 도민들께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재훈 기자

'일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겨요'

전북문화관광재단 '위케이션 프로그램' 본격 운영
지역소멸 위기 대응하는 관광형태 자리매김 기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전북 위케이션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16일 재단에 따르면 전북 위케이션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위케이션은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로, 워라벨을 중시하는 MZ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트렌트의 근무형태다. 참여자들은 평일 근무시간 기준 최소 2박 이상을 전북에 머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하며, 퇴근 후 저녁시간에는 체력,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에 재단은 전북 위케이션 프로그램이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관광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직장인 또는 기업단체, 특수고용직(하원장사, 예술인, 보험영업 등) 및 개인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 위케이션 홈페이지(www.jb-vcation.com)나 재단 관광콘텐츠팀(063-230-7475)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